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4 pp. 170-179,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4.17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들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이미숙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Mi-Suk Lee
College of Nursing, Koj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J시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 154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1.0 program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릿은 평균 2.97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63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73점,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43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그릿은 학과만족도, 건강상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적, 학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성적, 학과만족도, 건강상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그릿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그릿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건강상태이었으며 설명력은 42%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성적관리와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지도전략 및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from October 28 to November 28, 2022.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4 3rd and 4th year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J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WIN 21.0 program. Results of the study determined the average score for grit was 2.97 points, academic self-efficacy 3.63 points, clinical practice stress 2.73 poi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3.43 points. Compa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that grit showed differences i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Academic self-efficacy differed in academic performa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whereas clinical practice stress differed in department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showed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rit.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were grit,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performance, and health status,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requirement for an educational program that strengthens the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Furthermore,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sexual management and health behavior practice are also needed.

Keywords : Nursing, Grit,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Adjustment

본 논문은 거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Suk Lee(Koje. Univ.)
email: pr21053@koje.ac.kr
Received February 1, 2023 Revised March 2, 2023
Accepted April 7,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적응은 대학과 학과의 환경에 만족하며, 학업적 성취와 대인관계 형성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1].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은 학생과 대학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적응을 잘하면 대학생활의 성공, 전문 기술적 발전, 긍정적 습관의 함양, 개인의 행복 추구 및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만족하게 된다[2].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과정은 교양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전공과정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졸업 후에 다양한 임상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 있는 간호학이라는 전공을 접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임상실습 병행과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한다[3,4].

최근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전통적인 대면교육과 원격교육 방식인 비대면 교육이 병행되어 대학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블랜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을 진행하거나 실습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등 대학 자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5]. 이러한 학습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간호대학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다양한 실습 현장에서 그동안 습득한 간호학적 기본 지식과 기술, 인성 측면인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고 훈련하는 간호교육의 필수 과정이다[6]. 최근 지역 간호대학들은 간호학과 증가와 간호학생의 수적인 팽창으로 인해 우수한 임상실습 현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7],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대상자들의 실습 학생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전문적인 전인 간호에 대한 요구로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7]. 이로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에 대한 부담감과 실습 현장에서 겪는 압박감 등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8,9].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취 결과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높아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10].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전공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임상실습이라는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간호사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릿(Grit)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일관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며[11],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배양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11,12].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함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11]. 그릿은 간호대학생들이 학습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학업, 임상실습,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간호사로서의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끊임없는 끈기와 열정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그릿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그릿,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3],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14].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였으며[11], 대학생활적응은 그릿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3]. 그릿은 학업적응과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15],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그릿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16]. 이러한 결과로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 요인이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의 부정적 요인임으로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통합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지도전략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으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설명변수 11개일 때 필요한 표본의 수는 123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15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은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며[11], Duckworth 등[17]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1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력의 꾸준함' 6문항, '관심의 일관성' 6문항으로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Duckworth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3-.81이었으며, Lee 등[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19], Kim 등[1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문항은 역산 처리 후 합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 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4이었다.

2.3.3 임상실습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정, 사고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긴장 상태로 개인의 걱정이나 근심을 의미하며[20], Beck 등[21]이 개발하고 Kim 등[2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eck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 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3] Jeong 등[23]이 일반대학생 대상으로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관계' 4문항, '학업 활동' 4문항, '진로 준비' 4문항, '개인 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으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2.3.5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성별, 나이, 학년, 학업성적, 간호학과 입학동기, 학과만족도, 건강상태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e-IRB No. P01-202210-01-027)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었다. 대상자는 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으로 설명문과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목적, 자료의 익명성, 비밀보장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 섹션으로 이동하여 응답하도록 하였

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이었고, 응답 완료 후 휴대폰 번호를 남긴 대상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음료 쿠폰을 발송하였다. 완료된 응답 결과는 잠금장치가 있는 PC의 개인계정 구글드라이브에 보관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54명으로 남학생 22.7%, 여학생 77.3%이었으며, 나이는 21~25세가 83.1%로 가장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 68.2%, 4학년 31.8%이었으며, 학업 성적은 3.0~3.9점 이하가 69.5%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졸업 후 취업이 잘되어서'로 응답한 대상자가 47.4%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 47.4%, '보통' 41.6%, '불만족' 11.0%이었으며, 건강상태는 '좋다' 60.4%, '보통' 33.8%, '나쁘다' 5.8%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2.97±0.63점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63±0.53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73±0.64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43±0.55점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5(22.7)
	Female	119(77.3)
Age(year)	≤20	9(5.8)
	21-25	128(83.1)
	≥26	17(11.1)
Grade	3rd	105(68.2)
	4th	49(31.8)
Grade point average	≤2.9	17(11.0)
	3.0~3.9	107(69.5)
	≥4.0	30(19.5)
Motivation of admision	Employment guarantee	73(47.4)
	Aptitude	50(32.5)
	Correspond to score	4(2.6)
	Recommendation of family	27(17.5)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73(47.4)
	Moderate	64(41.6)
	Dissatisfied	17(11.0)
Physical health	Healthy	93(60.4)
	Normal	52(33.8)
	Poor	9(5.8)

Table 2. Level of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54)

Variables	Mean±SD	Min~Max
Grit	2.97±0.63	1.25-4.33
Academic Self-Efficacy	3.63±0.53	2.32-5.25
Clinical Practice Stress	2.73±0.64	1.21-4.13
Adjustment to College Life	3.43±0.55	1.89-4.8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릿은 학과만족도(p<.001), 건강상태(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학과에 만족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학

Table 3. Differences of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an (SD)	t/F(*p*)	Mean (SD)	t/F(*p*)	Mean (SD)	t/F(*p*)	Mean (SD)	t/F(*p*)
Gender	Male	2.96±0.53	-.27 (.788)	3.61±0.51	-.78 (.443)	2.68±0.64	-1.33 (.516)	3.40±0.51	-1.07 (.102)
	Female	2.98±0.56		3.68±0.08		2.83±0.65		3.50±0.61	
Age (year)	≤19	3.14±0.56	1.05 (.354)	3.94±0.20	2.22 (.113)	2.71±0.24	.02 (.980)	3.74±0.20	2.34 (.099)
	20~24	2.94±0.52		3.63±0.04		2.73±0.05		3.44±0.04	
	≥25	3.08±0.59		3.49±0.12		2.76±0.17		3.25±0.13	
Grade	3rd	2.96±0.53	-.27 (.788)	3.61±0.51	-.78 (.443)	2.68±0.64	-1.33 (.185)	3.40±0.51	-1.07 (.286)
	4th	2.98±0.56		3.68±0.08		2.83±0.65		3.50±0.61	
Grade point average	≤2.9	2.87±0.44	1.69 (.189)	3.27±0.41[a]	7.25 (.001) a<b,c	2.45±0.60	1.89 (.155)	3.25±0.46[a]	7.05 (.001) a,b<c
	3.0~3.9	2.94±0.54		3.62±0.50[b]		2.76±0.66		3.37±0.55[b]	
	≥4.0	3.12±0.54		3.85±0.56[c]		2.78±0.58		3.75±0.48[c]	
Motivation of admision	Employment guarantee	2.89±0.52	3.09 (.018)	3.57±0.51	1.68 (.157)	2.83±0.65	1.33 (.259)	3.37±0.52	3.40 (.011)
	Aptitude	3.15±0.50		3.78±0.51		2.6±0.68		3.64±0.58	
	Correspond to score	2.54±0.34		3.37±0.58		2.81±0.80		3.36±0.73	
	Recommendation of family	2.82±0.53		3.53±0.55		2.80±0.55		3.30±0.39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3.16±0.50[a]	11.91 (<.001) a,b>c	3.85±0.50[a]	18.42 (<.001) a>b>c	2.59±0.69[a]	11.22 (<.001) a,b<c	3.64±0.48[a]	13.43 (<.001) a,b>c
	Moderate	2.84±0.46[b]		3.50±0.43[b]		2.73±0.50[b]		3.30±0.53[b]	
	Dissatisfied	2.60±0.61[c]		3.16±0.54[c]		3.36±0.54[c]		3.03±0.55[c]	
Physical health	Healthy	3.02±0.53[a]	4.78 (.010) a>b,c	3.70±0.51	2.16 (.118)	2.73±0.66	2.92 (.057)	3.58±0.51[a]	12.62 (<.001) a>b,c
	Moderate	2.96±0.52[b]		3.52±0.48		2.65±0.59		3.28±0.51[b]	
	Poor	2.46±0.38[c]		3.55±0.82		3.21±0.59		2.81±0.49[c]	

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적(p=.001), 학과만족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간호학과에 만족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간호학과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성적(p=.010), 학과만족도(p<.001), 건강상태(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간호학과에 만족할수록,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 와 같다.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47, p<.001), 대학생활적응(r=.4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r=-.24, p=.003)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r=.5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54)

Variables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djustment to College Life
Grit	1			
Academic Self-Efficacy	.47 (<.001)	1		
Clinical Practice Stress	-.24 (.003)	-.15 (.074)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49 (<.001)	.54 (<.001)	-.12 (.144)	1

3.5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업성적, 학과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성적은 4.0 이상을 준거집단으로, 학과만족도는 '만족'을 준거집단,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다'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가변수로 변환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선형성 및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성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고, Dubin Watson 통계량은 1.79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공차가 1.0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또한 1.0으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도 0.8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4.90, p<.001),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β=.23, p=.002), 학업적 자기효능감(β=.34, p<.001), 학점이 '중'(β=-.16, p=.038), 건강상태가 보통(β=-.17, p=.011), 나쁨(β=-.23,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42%이었다(Table 5).

Table 5. Factor influencing on Adjustment to CollegeLife (N=15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69	.33		5.17	<.001
Grit	.23	.08	.23	3.12	.002
Academic Self-Efficacy	.36	.08	.34	4.49	<.001
Grade point average					
≤2.9	-.19	.13	-.11	-1.38	.169
3.0~3.9	-.19	.09	-.16	-2.08	.038
Satisfaction with major					
Moderate	-.05	.08	-.05	-.69	.490
Dissatisfied	-.04	.13	-.03	-.35	.727
Physical health					
Moderate	-.19	.07	-.17	-2.57	.011
Poor	-.52	.16	-.23	-3.25	.001
R^2=.45(Adj R^2=.42), F(p)= 14.90(<.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지도전략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Lee 등(2018)[3]의 연구에서 평균 3.31점, Park 등(2018)[16]의 연구에서 평균 3.01점, Park 등(2019)[11]의 연구에서 평균 3.20점보다 낮았고, Kim 등(2021)[13]의 연구에서 평균 3.13점 보다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어 시험, 과제 등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끈기와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그릿은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위한 꾸준하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성취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10].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다양한 임상 현장과 간호대상자를 접하게 되므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그릿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간호학과 만족도와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학과에 만족할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과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공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체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적용한 비교과프로그램이 그릿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63점으로 같은 도구로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Gil(2018)[24]의 연구에서 평균 3.67점과 유사하였고, 신입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Park 등(2019)[11]의 연구에서 평균 3.49점 보다는 높았으며,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Kim 등(2021)[25]의 연구에서 평균 4.04점 보다는 낮았다. 전체적인 점수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등도 이상으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서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10]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학업성적과 간호학과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과에 만족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전공지식과 관련된 도전적인 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전공과목과 학과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도록 학과 차원의 교과과정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73점으로 같은 도구로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Kim 등(2018)[26]의 연구에서 평균 3.11점, Lee(2019)[27]의 연구에서 평균 3.22점, Kim(2019)[28]의 연구에서 평균 3.08점보다 낮았다. 실습교육은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으로 구분되며, 연구마다 임상실습 병원 수나 학생 수 등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어 비교는 어렵지만[28], 임상실습의 경우 불분명한 실습목적과 학생의 역할이나 업무, 임상실습의 시설 부족, 교육내용과 임상실무의 연계성에 대한 스트레스, 실습기관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간호대학생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26]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는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 제한된 임상실습으로 교내/원격실습이 병행되어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학과만족도로 학과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임상실습 지도전략과 임상실습 전 임상 환경에 친숙해지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연계성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습 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명확하고 부담되지 않는 역할과 업무를 할당하고, 학교에서는 과제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재하여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같은 도구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Kim 등(2021)[13]의 연구에서 평균 3.30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Shin 등(2019)[29]의 연구에서 평균 3.27점 보다 높았으며, 다른 도구로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Lee 등(2018)[3]의 연구에서 평균 3.37점,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Park 등(2019)[11]의 연구에서 평균 3.27점 보다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학업성적과 건강상태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과에 만족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3]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간호학과에 적응하여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학업을 충실히 이행한 후 간호사로서의 진로선택과도 직결되므로 간호교육 과정에 전공관련 교육을 포함한 학과 및 대학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그릿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직 · 간접 영향 요인[3,11]이며,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15]이며, 그릿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30]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3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11]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재프르그램을 적용하면 대학생활적응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건강상태'였으며 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문대생의 대학생활적응 높이는 직·간접 매개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며[31,32], 또한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11]이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그릿의 영향요인[15]이었다는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즉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지식 습득, 임상실습 스트레스, 국가고시 합격 부담감 등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3,4]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대학생활부적응은 졸업, 국가고시합격, 취업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문직 간호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끈기[12]를 위한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 '건강상태' 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33,34]라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간호대학생들은 많은 학습량과 잦은 시험, 임상실습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더불어 간호대학은 간호교육의 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법 적용을 권고 받고 있는 실정[35]이라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성패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서 평균 학점이 영향 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36]와 같은 맥락이다.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질 높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입학 초기부터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지도전략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대학생활적응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이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건강상태'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지도전략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블랜디드러닝(Blended Learning)으로 진행되는 이론수업과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그릿의 평균점수는 선행연구 결과보다 낮은 점수 결과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끈기와 열정은 다소 부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블랜디드러닝(Blended Learning)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코로나19의 종식 후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장기적 강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2] A. Yüksel, F. Öz, "The evaluation of the psycho education program's effectiveness based on problem solving about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the universit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Lingual, Social and Educational Sciences,* Vol.4, No.2, pp.242-262, 2018.

[3] S. J. Lee, J. 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 269-276, Feb.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4] W. M. Chemomas, C. Shapiro,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0, No.1, pp.256-266, Nov. 2013.
DOI: http://dx.doi.org/10.1515/ijnes-2012-0032

[5] M. H. Jeo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gagement, communication ability, college of life adaption and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ffline and online lecture,"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15, No.2, pp.83-102, May 2021.
DOI: https://doi.org/10.18015/EDUMCA.15.2.202105.83

[6] J. A. Y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Vol.10, No.3, pp.325-334, Aug. 2004.

[7]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 No.2, pp.143-154, 2007.

[8] L. J. Labrague, D. M. McEnroe-Petitte, D. Gloe, L. Thomas, I. V. Papathanasiou, K. Tsaras, "A literature review on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Vol.26, No.5, pp.471-480, Dec. 2007.
DOI: https://doi.org/10.1080/09638237.2016.1244721

[9] S. Gomathi, S. Jasmindebora, V. Baba, "Impact of stress on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Research and Advanced Studies,* Vol.4, No.4, pp.107-110, 2017.

[10]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 and action: A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1986.

[11] I. S. Park, S. S. Ahn,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grit of new students of nursing colleg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13, No.4, pp.1-12, 2019.

[12] A. L. Duckworth, P. D. Quinn, M. E. Seligman,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4(6), pp.540- 547, 2009.
DOI: https://doi.org/10.1080/17439760903157232

[13] H. J. Kim, J. H.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ti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2, pp.152-162, Dec. 202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1.22.12.152

[14] H. J. Kim, D. Park, M. S. SEO, "The Effect of Group Bullyi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Ego-resilience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 f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3, pp115-123, 2021.
DOI: https://doi.org/10.21097/ksw.2021.08.16.3.115

[15] N. A. Bowman, P. L. Hill, N. Denson, R. Bronkema,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6, No.6, pp639-645, 2015
DOI: https://doi.org/10.1177/1948550615574300

[16] J. Y. Park, C. H. Woo, J. E. Kim,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1598-4877, Jun.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65

[17]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18] S. Lee, Y. W. Sohn, "What are the strong predic- 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0, No.3, pp.349-366, 2013.

[19]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9, No.0, pp. 95-123, 2001.

[20] R. S. Lazarus, S. Folkman, "A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 pub. 1984.

[21]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Mar. 1991.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22]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23] J. E,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69-96, Oct. 2009.
DOI: https://doi.org/10.17927/TKJEMS.2009.21.2.69

[24] C. R. Gil,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12, pp.617-626, Dec.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617

[25] G. S. Kim, Y. Yoo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 pp.244-253. Jan.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1.244

[26] Y. J. Kim, I. J. Jeong,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2, No.3, pp. 297-308, Apr. 2018.
DOI: http://dx.doi.org/10.21184/jkeia.2018.4.12.3.297

[27] S.-Y.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al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4, No.4, pp.235-245, Nov. 2019.
DOI: http://dx.doi.org/10.21097/ksw.2019.11.14.4.235

[28]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5, No.8, pp.433-441, Dec. 2012.
DOI: http://dx.doi.org/10.21184/jkeia.2021.12.15.8.433

[29] K. A. Shin, S. Kang, "Comparison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by Type D Persona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273-282, Oct.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0.273

[30] Y. S. Kim,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Grit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9, pp.451-460, Sep.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09.451

[31] J. Y. Kim, E. J. Kim, J.-S. Kim, "The Medi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14, No.1, pp.53-73, Mar. 2018. DOI: http://dx.doi.org/10.51636/JOTD.2018.03.14.1.53

[32] Y. W. Lee, E. S. Lee, "The Mediated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5, pp.35-47, May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5.035

[33] H. S. Hong, H. Y. Kim,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2), pp.221-234, 2016.

[34] M. J. Seo, J.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4, pp.815-824, Apr.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815

[35] M. R. Jung, E. Jeong, "Effects of E-book-based Flipped Learning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2, pp.490-501, Feb.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490

[36] H. J. Jeong,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Body Figure, Subjective Body Shape and Obesity Stress on Subjective Health Statu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4, pp.219-225, Nov. 2012. DOI: http://dx.doi.org/10.21097/ksw.2021.11.16.4.219

이 미 숙(Mi-Suk Lee) [정회원]

- 198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9월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학, 간호통계